

공연장 밖으로 나온 클래식



신지용 트리오가 '카페뮤지엄CM'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CM 제공>

광주시 동구 '카페뮤지엄CM' 신예·인디신 뮤지션 음악 산실 '화요 클래식' 관객 장벽 허물어 모던 록·탱고 발라드 등 장르 다채

저녁 시간이면 라이브 보컬들과 음악 세션으로 북적이는 '핫플'이 있다.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디신 뮤지션부터 스탠드업 코미디언, DJ, 록밴드 등을 만날 수 있는 카페뮤지엄CM(대표 정은주·동구 문화전당로 29-1·이하 CM)이 바로 그곳.

그런데 조금 '독특'하다. CM에서 전통 클래식 공연장에서나 주로 울려 퍼지는 바흐, 드뷔시, 클래식 켈렛의 선율 등이 흘러 나왔기 때문. 조용한 음악감상회와 비교해봐도 자못 이색적인 매력이 느껴진다.

마치 첼로와 바이올린이 공연장 밖으로 걸어나와 관객들 앞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았다.

"라이브 콘서트"는 CM 정은주 대표와 우연히 기획했어요. 당시 드럼 레슨을 지도하고 있던 제가 수업 일환으로 정 대표를 공연장에 데려왔지

요. 그때 정 대표가 "CM 1층은 '음악'으로 채우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묻자 돌아온 CM의 음악감독 사군의 말이다. 처음에 그는 '주저'했다고 했다. 기획도, 예산도 힘에 부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지역에서 드러머,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며 비슷한 제안을 많이 받아 왔지만 조금 진행된다 싶으면 얼마 못 가 무산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호기롭게 의기투합했다. 함께 프로그램이 이끌어 왔고, 점차 그 영역을 클래식까지 확장해 나갔다.

'화요 클래식' 무대는 그동안 전통적인 공연장에만 갇혀 있던 예술가들과 관객의 장벽을 허물고 클래식 예술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연히 지역 클래식 음악가들을 만나 "라이브 카페 등에 클래식 신예부터 유명 뮤지션들을 다채롭게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예술가들을 초대하게 됐다.

지난 8월에는 피아니스트 다미앙 필립과 송이린이 '파리에서 온 여름'을 주제로 음악회를 열고 바흐, 드뷔시, 비제의 곡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9월 '미술관에 간 클래식 북 콘서트'에서는 박소현 연주자가 비올라, 바이올린으로 슈만, 쇼팽, 오펜바흐, 피아졸라 등의 곡을 들려줬다.

무대에 오르는 장르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채롭다. 모던 록부터 탱고 발라드, 클래식 포크송을 비롯해 어쿠스틱 뮤직과 팝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무대에 올랐다.

사군은 "단순한 상업 음악이 아니라 다양성, 자신의 색채를 추구하는 음악가들을 위주로 섭외해 왔다"며 "그런 아티스트가 있다면 과감하게 먼저 연락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CM은 함춘호, 이한철, 최항석 등 다양한 음악 장르에 전착해 온 지역 뮤지션들을 초대해 매주 오후 7시마다 공연을 선보여 왔다. 이번 달만 해도 15일 신지용 켈렛의 라이브 콘서트를 비롯해 8일 보컬리스트 임음, 기타리스트 박성연, 라틴 퍼커션 부에나노멘도 등이 출연했다.

오는 22일 오후 8시에는 지난달 1집 앨범 'Comin' Home'을 발매한 뮤지션 이광배를 초청, 밴드와 일렉트릭 기타, 드럼 등 사운드를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내년 1월 12일에는 뮤지션 '고나', 26일은 '베리 아이리쉬'가 출연할 계획이며 29일은 '신지용 켈렛'이 클래식 무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갑진년을 따뜻하게 채울 예정이다.

무료 공연(자율 후원제), CM 2층에는 '오월 미술관'도 자리하고 있어 한 공간에서 음악과 미술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최유민 기자 rubi@



박진현의 문화카페

스페인인 빌바오시는 1970년대 제철소와 조선업으로 이름을 날린 공업도시였다. 하지만 철강업이 쇠퇴하면서 생존 기로에 서자 당시 1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뉴욕 구겐하임 분관 유치에 나섰다.

빌바오시가 구겐하임 분관을 선택한 이유는 뉴욕 구겐하임 때문이다. '달팽이 미술관'으로 유명한 구겐하임은 전설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으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건축미는 구겐하임을 세계적인 명소로 키웠기 때문이다.

'제2의 뉴욕 구겐하임'을 꿈꾼 빌바오는 캐나다 출신의 해체주의 거장 프랭크 게리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불꺼진 항만과 산업단지에서

표되자 지역 문화계 일각에서는 공모방식과 랜드마크 등을 이유로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명 건축가들을 초청하는 지명공모 대신 누구나 응모하는 자유방식으로 진행해 '레전드 건축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언론을 통해 당선작의 조감도를 접한 이들은 외형적으로 '평범해' 지난 200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사례처럼 랜드마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상당수의 외국 유명 미술관들은 건축 취지에 맞는 화려한 외관의 건물을 짓기 위해 권위 있는 설계자들을 후보군으로 끌어 들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도록 한다.

새 비엔날레 전시관에 대한 단상

빠어난 미술관을 건립해 도시를 되살려 달라고 의뢰한 것이다. 빌바오시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게리는 1997년 3만 여장의 티타늄 패널과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기념비적인 건물을 탄생시켰다. 바다를 향해하는 배와 해엄치는 물고기를 떠올리게 하는 외관은 매년 100여 만 명이 다녀가는 글로벌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그런 면에서 최근 광주시의 비엔날레 전시관 국제설계 공모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남는다. 현 비엔날레 전시관이 노후되면서 새 전시관(광주 매곡동 주차장 부지 3만4925㎡) 설계공모를 통해 '소통의 풍경 그리고 문화적 상상체'라는 주제로 제안한 ㈜토문건축사사무소·㈜윤생동건축사사무소·㈜리가은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대학교수·건축사로 꾸려진 심사위원회는 국내외23개 공모팀 가운데 비엔날레 상징성, 전시공간의 효율적 구성, 건축물의 랜드마크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당선작을 뽑았다고 밝혔다.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적임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랜드마크의 정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총사업비 1천182억원을 투입하는 메가 프로젝트라는 점이다. 국제미술이벤트인 비엔날레는 행사기간동안 국내외에 자연스럽게 비엔날레 전시관이 자주 노출된다는 점에서 광주관광의 핵심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명작이 탄생한다면 광주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의 아이러니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소중한 자원이다. 게다가 건물은 한번 짓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ACC에 이어 문화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기회를 또 한번 날린 건 아니다. 부디 나의 격정이 기우이길 바란다. <문화·여행국장, 선임기자>

'휴식'의 작품들은 어떻게 확장되는가

GB작가스튜디오탐방 '김자이 작가' 초대...28일 유튜브 공개

김자이 작가는 휴식을 모티브로 내면의 서사를 다채로운 조형언어로 표현해오고 있다. 투병 체험의 계기가 된 '휴식'의 작품들은 어떻게 확장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올해 마지막 GB작가스튜디오탐방은 김자이 작가를 초대한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김 작가 작업실에서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광주비엔날

레 공식 유튜브에서 28일 공개예정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가의 이야기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왜 휴식을 작업 주제로 선택했는지, 그 휴식이 어떻게 내면과 외부와 긴밀하게 조응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

김 작가는 조선대 판화미디어과를 거쳐 런던 킹스톤대학교 아트&스페이스에서 석사를 졸업했으며 조선대 미술학부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그동안

'생태미술프로젝트', '휴식의 기술' 등 다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작가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박정에 평론가와 매칭했다.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발행 학회지 '미술과 교육' 편집장을 역임한 박평론가는 지금까지 '포스트모던 미술, 미술교육론' 등을 펴냈다.

박양우 대표이사는 "작가스튜디오탐방은 지역 작가에 대한 소개와 지역 문화예술 가치의 공유와 확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스튜디오탐방을 통해서도 작가와 작가의 작품에 의미있는 접근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인 권리 침해 통합 신고센터 개소

예술인의 권리 침해 신고부터 피해 구제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예술인 권리보장센터'가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예술인을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인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3층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지난해 9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1월 발족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술인의 권리 침해 피해 상담과 신고, 피해구제 등 전 과정을 진행하는 곳

이다. 권리 침해 피해를 본 예술인은 권리보장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예술인신문고'나 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센터 내 조사실이 사건을 조사하고, 문체부는 그 결과를 권리보장위원회에 보고한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사건의 종결·분쟁 조정·시정명령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예술인 권리보장센터는 이외에도 예술인들의 권리보호 교육, 서면계약 체결 지원 등 불공정한 관행 개선도 뒷받침한다. 예술 분야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법률상담 공간도 제공한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